

스포츠와 사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공식 뉴스레터

2023년 06월호

발행일 : 2023.06.30

안녕하세요.

2023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의 두 번째 뉴스레터 '스포츠와 사회 vol. 09'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6월호 뉴스레터에는 서울대 박찬우, 충남대 김대희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원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소식과 남은 학술행회 일정도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스포츠사회학회가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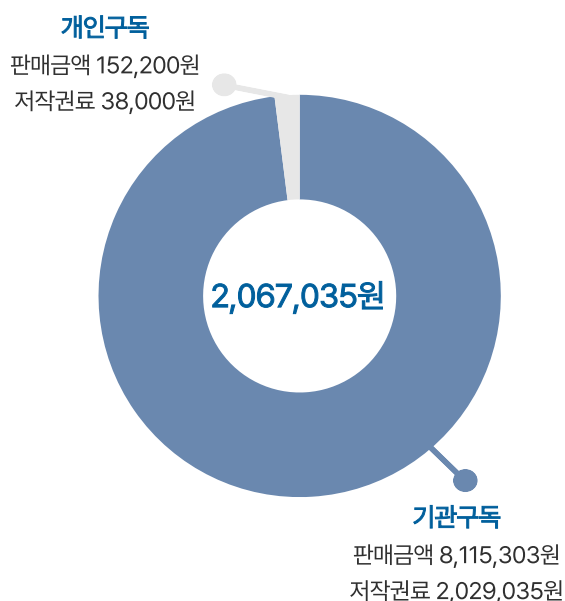
2022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저작권 정산 내역 안내



저작권료 정산 내역
기간: 2022.04~2023.03



다운로드 논문 순위(top 10)
기간: 2022.04~2023.03



순 위	논문제목	저자명	구독 횟수
1	스포츠, 사회문제, 그리고 스포츠사회학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포츠사회학의 도전과 가능성	임새미, 김한범	549
2	포스트 코로나 사회, 스포츠, 스포츠사회학	남상우	454
3	청년 1인가구 여가인식탐색 : 네트워크기반 의미연결망분석의 적용	함연주, 원영신, 김수연	230
4	스포츠메가이벤트와 경제효과: 그 진실과 허구의 재구성	정희준	227
5	스포츠 참가 종목 및 시설 이용과 사회계층의 실재: 국민생활체육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검증	진규진, 장익영	210
6	'한국형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클럽'까지: 스포츠클럽 정책의 궤적과 정당성, 그리고 사회학적 전망	남상우	205
7	부르디외 자본론으로 해석한 장애인스포츠의 공간적 차별	김기운	201
8	스포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바우만(Z. Bauman)의 시각으로	김기운	192
9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정래, 권기남	191
10	상상된 국가대표: 상상된 공동체 개념을 통해 본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와 정체성의 정치	한승백	173



항상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의 논문 투고 및 구독에 감사드리며, 회원분들의 구독으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보다 나은 학회 운영 및 학술행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많은 구독과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88서울올림픽기념 국제학술대회 안내

- 대회주제: 스포츠를 통해 미래를 보다 (See the Future through Sports)
- 세부주제: 스포츠문화와 아이덴티티,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정책, 미래사회와 학교체육, e스포츠의 현재와 미래
대안
- 참가 등록비 안내

구 분		사 전 등 록		현장등록
		1차 등록 (2023.06.26 ~ 07.08)	2차 등록 (2023.07.09~07.21)	
일 반	한국체육학회 정회원	60,000원	70,000원	80,000원
	한국체육학회 비회원	70,000원	80,000원	
대학생	한국체육학회 정회원	40,000원	50,000원	70,000원
	한국체육학회 비회원	50,000원	60,000원	

참가 사전 등록은 위와 같으니, 붙임2. 국제학술대회 참가등록 신청서 파일에 기재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술대회 분가 섹션은 자유 주제로 발표됩니다.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7월 18일까지 한국스포츠 사회학회 메일(ksss1990@naver.com)로 초록(abstract)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학회 일정

사업내용	일 시	장 소	주 제	비 고
88서울올림픽기념 국제학술대회	8월 17일(목)~ 18일(금)	용인대학교	스포츠를 통해 미래를 보다	한국체육학회 주관
제104회 전국체전기념 학술발표회 & 한국체육학회 70주년 행사	10월 중	목포대학교	스포츠 인권의 사회학적 논의	한국체육학회 주관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1월 24일(금)	건국대학교	스포츠 사회이론 및 주제 발표	

 주요 사업 외에 9월~11월 중 가칭 '스포츠 이슈&정책포럼'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임

박찬우 (서울대학교) | ssamsun@snu.ac.kr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중” : 모빌리티 이론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모빌리티 구성과 실천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박찬우입니다. 제 연구는 존 어리(John Urry)가 제시한 모빌리티 이론(mobility theory)을 통해서 오늘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자전거와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제 연구에서는 ‘자전거 모빌리티를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자전거 모빌리티의 실천 방식은 어떠한가?’, ‘자전거 모빌리티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오늘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제가 학위논문에서 다루었던 모빌리티 이론을 학회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관련된 논의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은 ‘모빌리티 이론과의 만남’, ‘모빌리티 이론의 이해’, ‘모빌리티 이론의 유용성과 제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해 학회 회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추후 개최될 학회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 모빌리티 이론과의 만남

한국 사회의 자전거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였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들까지 그 대상이 정말 다양하다.

둘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같이 가벼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부터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빌리티’를 만나게 되었다. 특히, 자전거와 관련된 현상은 ‘이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모빌리티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오늘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스포츠/여가 관련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전통적인 스포츠로 여겨지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의 종목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모빌리티 이론은 자전거를 비롯하여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스포츠/여가 활동을 ‘이동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모빌리티 이론의 이해

최근 우리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용어를 쉽게 접하고 있다. 스마트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등 우리 사회에서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언급은 주로 새로운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한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술적인 영역에서의 모빌리티는 영국의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가 제시한 모빌리티 전환(mobility turn) 혹은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new mobilities paradigm)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는 2000년에 출간한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이동과 하이브리드로 사유하는 사회학』을 통해서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모빌리티를 강조하였다. 이는 사회학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 사물, 이미지, 정보 등 다양한 이동을 검토하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2007년 『모빌리티(Mobilities)』를 출판하면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론/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모빌리티 연구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오히려 하나의 활동(activity)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빌리티는 이동 중의 대화, 일,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동에 내재된 긴장, 갈등, 관계 등 총체적인 경험에 주목한다. 즉, 모빌리티 이론에서는 이동하는 주체뿐 아니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기술적, 제도적 맥락 등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이며, 이동성에 내포된 다양한 경험과 의미(사회적 모빌리티)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모빌리티 이론의 유용성과 제언

모빌리티 이론의 유용성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간에서 장소로 인식이 전환된 것이다. 기존에 이동성과 관련된 연구는 A에서B로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에 관심을 두었다. 반면, 모빌리티 이론에서는 이동하는 과정에 부여된 의미를 강조한다. 예컨대, 모빌리티 연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이동 간 내재된 주체들의 총체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두 번째는 흐름(flow)에 대한 강조이다. 바우만은 『액체근대(liquid modernity)』를 통해서 기존의 고체의(solid) 것들이 현대에서는 액체의 상태로 전환된 것을 주장한다. 예컨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여가 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과 유사하게 모빌리티 이론은 현대사회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움직임’이며, 오늘날 끊임없이 이동하는 현대사회를 읽을 수 있는 유용한 렌즈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빌리티 이론은 오늘날 스포츠/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오늘날 라이프스타일 스포츠(lifestyle sports)가 전통적인 스포츠/여가활동과 다르게 끊임없이 이동하고,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빌리티 렌즈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모빌리티 관련 연구에서는 이동성에 내재된 불평등, 모빌리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이론은 그동안 이론을 정립하고 구축하기 위한 시도와 모빌리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개념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여가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모빌리티 렌즈를 통해 분석하고, 오늘날의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족한 소개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빌리티 연구는 존 어리(John Urry), 팀 크레스웰(Tim Cresswell), 피터 에디(Peter Adey), 미미 셸러(Mimi Sheller) 등의 학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Moblities』 학술지가 창간되었고, 이후 2011년 『Transfer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Mobility Studies』, 2016년 『Applied Mobilities』 학술지가 지속적으로 창간되면서 모빌리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모빌리티 연구와 관련하여 『모빌리티』, 『모빌리티 이론』, 『모빌리티와 생활세계의 생산』 등의 다양한 도서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에서는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KU Academy of Mobility Humanities)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빌리티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희 (충남대학교) | daehee@cnu.ac.kr

☞ 내부자가 되어 연구하기 ☞

“안녕하세요? 염 감독님 소개로 찾아온 충남대에서 스포츠사회학을 전공하는 김대희라고 합니다.” 나의 첫 소개였다. 어색한 분위기에 형식적인 대화가 오가는 소개를 마치고, 나는 본격적으로 연구주제부터 소개했다. “제가 크로스핏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인터뷰에 응해줄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색했지만, 어렵진 않았다. 질적연구는 믿을만한 지인을 소개받아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 절박한 질문, 피상적 답변

질적연구는 기본적으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한다. 보통 연구자는 내부자(Insider)가 아닌 외부자(outsider)로써 그 세계를 충분히 알고, 성실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내부자에게 의존하여 자료를 얻는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내부자들과 일정 시간을 보내면서 라포를 형성하여 수집한 자료가 재료가 되어 논문을 완성한다. 궁극적으로 그 세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핵심이고,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자 최소한의 노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면 충분할까? 내부자들은 연구자의 질문과 대화에 진솔한 답변을 해주었을까? 나아가 연구자가 원하는 던 바, 그 세계를 충실하게 담을 수는 있는 조건이 준비되었을까? 박사학위 질적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나의 첫 문제의식이였다.

내가 박사학위 연구를 위해 내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시기는 2018년도이다. 현재까지 크로스핏과 관련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니,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그렇듯, 박사학위를 위한 연구는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끌림이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연구주제에 대한 비전을 보고 주제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불타는 열정으로 시작하는 게 박사학위 논문이다. 나 또한 그랬다. 그랬기 때문에 순수했고, 의욕이 넘쳤다. 호기심이 충만한 나는 의욕에 비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참여관찰도 했고, 한 두어 번 인터뷰는 했지만, 정말 내가 이곳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계기가 되어 내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 내부자 되기의 어려움

내가 경험한 크로스핏 박스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이 필요했다. 같이 운동하는 건 당연하고, 체육과 나왔으니 이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우리의 영역에 들어올 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였다. 쉽게 말해서 '허가증'을 발급받는 절차다. 가령 크로스핏에 WOD(Workout of The Day)하루 미션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는가? 박스에서 참여하는 대회에 동참하는가? 사적인 모임에도 관심을 두는가? 크로스핏의 대표적인 저널(journal), 규칙(rule), 우수한 선수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등이었다. 일원이 되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단순히 같이 운동하고 친해지면 내가 원하는 답을 주겠지 했던 연구자의 경솔했던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다. 스포츠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사회이론을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정말 그들이 갖는 관심 거리에 공감하고 그 이상, 그 세계를 잘 알아야 했다. 시간과 만남의 빈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부자가 모르는 그 이상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친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공부였고, 그러면서 가까워졌다.

현장연구는 어렵다. 내부자가 관심 갖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지식을 공부해서 공유해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부의 기존 구성원들이 연구자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특정한 연구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이들을 운동 방해꾼으로 느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내 시간과 공간을 내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나의 운동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귀찮게 말을 걸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필요하지 않은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내부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내주지 않는다. 지금은 나와 함께 크로스핏을 하는 동료가 전해준 이야기다.

그러나 운동을 같이 하는 내 동료가 연구자가 된 이후부터 동료들은 매우 적극성을 보여준다. 특히 내가 크로스핏 관련 연구를 소개하거나, 내부자들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해석해주고 교감하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이제는 나에게 역으로 질문을 한다. "박사님(애칭)~ 나 왜 이렇게 이 운동에 집착해?" "크로스핏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나에게 질문한다. 내부자면서 연구자인 동료가 생기면서 내부자들은 말한다. 무심코 했던 일상적 행위들의 의미를 일깨워주었다고 한다. 특히 동료들은 자신의 사소한 일상에 배태된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 운동을 더 아끼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연구자는 또 다른 연구주제가 떠오른다. 진정한 선순환이다.

□ 내부자가 되어 연구한다는 의미

내부자가 된 동료들이 나에게 줄곧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니깐 네가 크로스핏학과 교수야? 크로스핏 박스 사장이야? 크로스핏 연구하면 연구비가 많아? 왜 계속하는 거야? 크로스핏이 다른 종목처럼 대성할 것 같아? 빨리 정리해서 크로스핏 좀 알려줘요! 네가 그런 거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등등.... 연구자보다 내부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는 순간 내부자가 되었구나 느꼈다. 내부자가 되면 장점이 많다. 다양한 주제들이 떠오르고,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깊은 대화를 나눌수 있다. 신뢰에 속도가 붙듯이, 연구 질문과 주제에 관한 생각과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심리적 벽이 허물어지면서, 학연·지연 같은 동지애가 생겨서 자발적 제보자가 늘어난다.

필자는 내부자가 되어 연구하길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물론 내부자가 되기 위해선 많은 기회비용이 드는건 사실이다. 관계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과 인내력, 관계가 깊어질수록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로움이 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원님들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새롭게 석사 과정에 입학하신 회원분들을 소개합니다.

- 김용은(전남대학교), 김대희(충남대학교) 회원님께서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A유형)에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원님들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2023년 1학기 새롭게 석사 과정에 입학하신 회원분들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본 학회를 밝게 빛내주시길 기대합니다.)



홍혜영 32세

소속: 한국교원대학교
과정: 2023년 석사 1학기 입학
자기소개: 잘 부탁드립니다.



김건홍 33세

소속: 한국교원대학교
주요 연구 관심 분야: 스포츠문화, 학교체육 문화
자기소개: 스포츠사회학회의 한 줄기 빛이 되겠습니다!



이기림 29세

소속: 한국교원대학교
주요 연구 관심 분야: 스포츠 공정, 스포츠 권력, 스포츠 리그
자기소개: 의심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회비 및 납부 계좌 안내

- 임원회비
회장: 1,000,000원
부회장: 500,000원
이사: 200,000원
- 연회비
정회원: 50,000원(신규회원 입회비 10,000원 별도)
준회원(학부생) : 10,000원
단체회원 : 200,000원
- 회비 납부 계좌: (신한) 140-010-810591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원고 접수 및 발행 안내

2023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36권 제3호 논문투고 안내

- 투고 마감: 2023년 6월 31일(금)
- 논문 발행일: 2023년 9월 15일(목)
- 투고 사이트: www.dbpiaone.com/ksss
- 논문 유사도 검사 파일 첨부
- 심사비: 50,000원
- 계좌: (국민) 777501-04-204752